

월요논단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

6월이지만 벌써 열대야 소식과 함께 올여름 여름철 폭염의 기상에보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상당히 걱정스럽다.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범세계적 이슈였고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산림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고 제주도정에서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 중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본계획은 생활공간과 자연공간

을 구분해 녹지공간 확산전략의 방향과 방식 제시를 목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상의 검토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제주의 여건에 맞는 식생을 생활공간에서 확산하려는 의도와 접근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도시녹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원 인프라 확산을 시도하며 기후 대응 도시숲, 도시 바람길 숲, 자녀 안심 그린 숲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업의 목적이나 세부 내용은 의미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숲과 정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 대상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였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공원관련부서, 환경관련부서, 그리고 도시건축 관련부서간의 연계와 보완적 관계설정을 전제로 세부적인 도시숲 조성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연계한 도시숲 조성이다. 자연공간보다는 긴급한 생활공간의 녹지확산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별 생활공간의 여건과 지향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생활권의 차이성을 수용하면서도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이기도 하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이미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구상에서도 마을정원사의 도입을 통해 지역 주민 중심의 관리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 조

성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목조주택의 활성화 등으로 연계해 산업화로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보행중심의 공원 및 녹지공간 계통화이다. 공원배치는 공원과 녹지계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개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공원과 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街路)에 의해 산책, 자전거 타기 등 생활권 내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계통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원계통화의 틀속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인 주거지의 일부를 정원화 하거나 일정규모의 공간을 도시숲으로 조성해 공원 계통화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며 이는 필자가 제시하였던 그린그리드구상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이를 위한 근거와 지원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버려지는 음식물, 제주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강상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무관

려진 음식물이 다시 에너지로 순환되며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과거의 폐기물 행정이 '수거해서 없애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줄이고, 분리하고,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주처럼 관광객과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생활환경과 관광, 탄소중립 실천과 직결된다. 시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먹음 만큼 조리하고 주문하기, 음식물쓰레기 물기 줄이기, 이물질 섞지 않기, 배출시간과 방법 지키기 같은 실천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줄인다. 행정 역시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약취·안전 관리, 주민과의 소통, 자원화 성과의 공유에 힘써야 한다. 버려지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이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흔히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의 원인이 되고 수거·운반·처리 과정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에너지와 자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기성 자원이다.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후 선별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특히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전력과 열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버

뉴스-in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검토 필요”

경제계, 지역경제 판단 주문

○...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4개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제주 경제 위기 극복과 상생 발전' 성명을 내고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 이들 단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기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이어 “도의회는 지역경제와 도민사회 전체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시켜 달라”며 “이번 논의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호소한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하천 안전요원 선제적 배치

○...서귀포시가 최근 이른 무더위로 전국적으로 수상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행정안전부의 특별대책기간 조기 운영 방침에 따라 안전요원 선 배치 등 하천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이에 안전요원 정식 채용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지난 12일부터 선제적으로 배치해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순찰 및 안전지도 활동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시 관계자는 “안전요원 공개 채용 절차도 정상 추진 중으로 이달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정식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사설

지방공기업 임원 활동비, 기준 명확히 해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 방식 임의 변경, 그린수소 염가 판매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비상임 임원에 지급된 월정액 활동비 논란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비상임 임원 5명에게 총 4500만원의 활동비(월정액)가 지급됐지만 실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은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액 지급 방식은 개별 내역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전국 지방공기업 상당수가 비상임 이사

활동비를 월정액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월정액 활동비의 성격과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월정액은 통상 개별 지출 내역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액 보전 성격을 띤다. 반면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비 정산 방식에 가깝다. 비상임 이사에 대해 상근 임직원의 활동비(월정액)가 지급됐지만 실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은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액 지급 방식은 개별 내역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전국 지방공기업 상당수가 비상임 이사

하천 무단 점용 만연... 정기 단속 이뤄져야

제주지역에서도 하천변 불법 이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계곡·하천구역에서의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하천은 건천으로 경관이 수려하다. 지질·생태·문화적 가치도 높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하천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극한 폭우가 빈번하고 있다. 범람으로 하천 원형도 훼손되고 있어 정비 필요하다. 제주도는 하천구역 불법 이용행위자로 하여금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강제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 통수 기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지 도내 하천·계곡 전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 통지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미이행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건천으로 경관이 수려하다. 지질·생태·문화적 가치도 높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하천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극한 폭우가 빈번하고 있다. 범람으로 하천 원형도 훼손되고 있어 정비 필요하다. 제주도는 하천구역 불법 이용행위자로 하여금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강제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 통수 기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홍익 어머니 제주양씨 병상(향년 101세)
께서 서기 2026년 6월 14일 06시 4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6년 6월 1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6년 6월 16일(화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홍익 며느리 홍경애
(숙)상익 오희정
딸 김복신 사 위 서철건
금희 강덕수
나현 오영호
정희 손국현
효신 고창민
손 자 김중현 손 부 이영주
종후 최희정
손 녀 김현주 연주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